

KISTEP 통계 브리프 2006-20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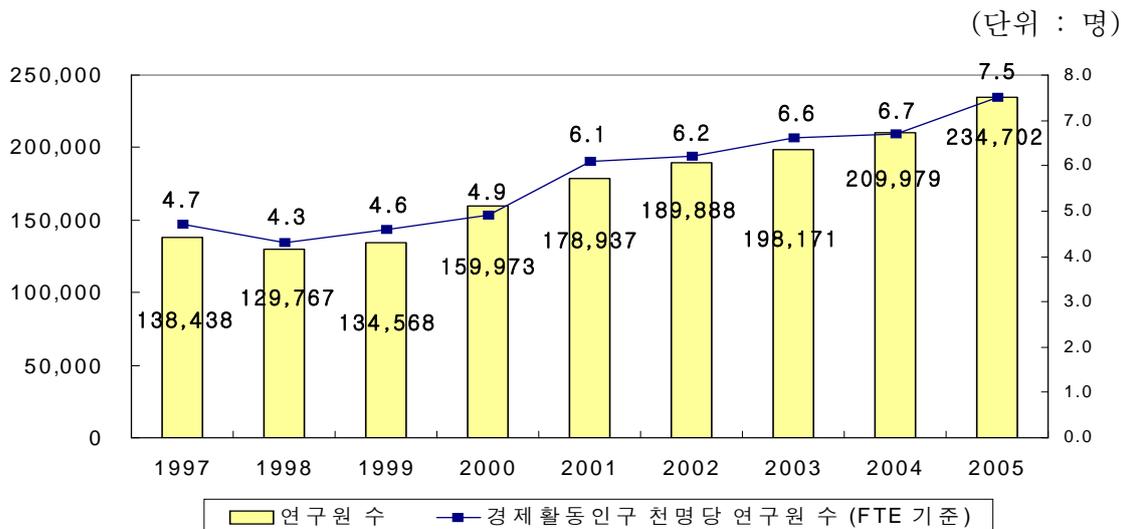
2005년 우리나라 연구개발인력의 특성 분석



□ 연구원 및 연구개발 인력의 급속한 증가

- '05년 우리나라 연구개발 활동의 가장 주요한 특성은 연구인력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임
 - 총 연구개발 인력(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)은 335,428명으로 전년대비 7.4% 증가하였으며,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11.8% 증가한 234,702명 수준
 - 상근상당(FTE) 기준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15.1% 증가한 179,812명
- 특히 연구원 집약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7.5명으로서 전년도 6.7명에 비해 크게 증가함
 - 미국(9.1명), 일본(10.2명)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프랑스, 영국 등의 유럽국가보다는 높은 수준임

<그림 1> 우리나라의 연구원 수 추이



<표 1> 연구원 수 국제비교

국 가	한국(2005)	미국(2002)	일본(2004)	독일(2003)	프랑스(2003)	영국(1998)	중국(2004)
연구원수 (FTE 기준, 명)	179,812	1,334,628	677,206	268,942	192,790	157,662	926,252
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(FTE, 명)	7.5	9.1	10.2	6.8	7.1	5.6	1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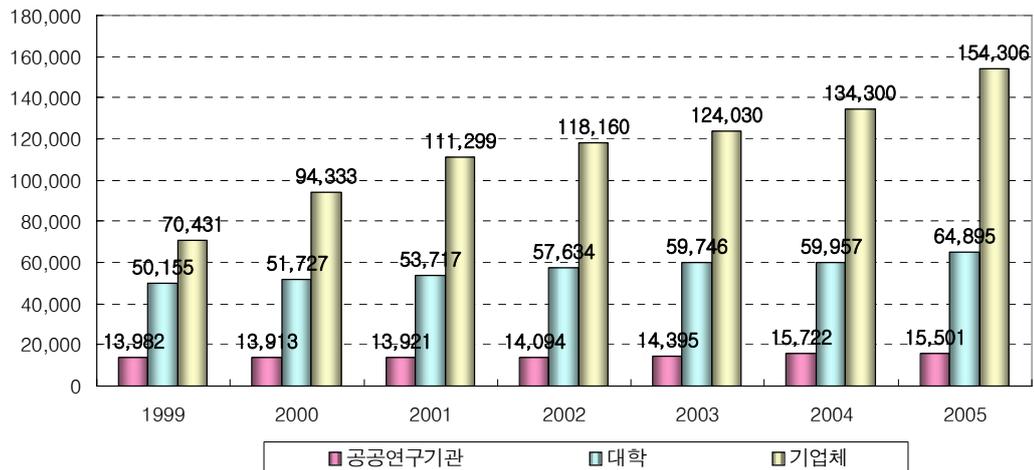
자료) OECD, Main Science & Technology Indicator 2006/1

□ 기업부문의 연구원 수 증가

- 연구 주체별로는 기업부문의 연구원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는데, '05년 기업부문의 연구원 수 증가율은 14.9%로서 2만여명의 연구원이 증가
 - '04년 기업부문 연구원 수 134,300명, '05년 154,306명
- 반면, 대학부문과 공공부문의 연구원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, 특히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 수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였음
 - '04년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수 15,722명, '05년 15,501명
 - 대학부문은 연구원의 절대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감소

<그림 2> 연구주체별 연구원 수 추이

(단위 : 명)



<표 2> 기관별 연구원 수

(단위 : 명)

구 분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2005
공공연구기관	13,982 (10.4)	13,913 (8.7%)	13,921 (7.8%)	14,094 (7.4%)	14,395 (7.3%)	15,722 (7.5%)	15,501 (6.6%)
대 학	50,155 (37.3%)	51,727 (32.3%)	53,717 (30.0%)	57,634 (30.4%)	59,746 (30.1%)	59,957 (28.5%)	64,895 (27.6%)
기 업 체	70,431 (52.3%)	94,333 (59.0%)	111,299 (62.2%)	118,160 (62.2%)	124,030 (62.6%)	134,300 (64.0%)	154,306 (65.7%)
총 연구원 수	134,568 (100%)	159,973 (100%)	178,937 (100%)	189,888 (100%)	198,171 (100%)	209,979 (100%)	234,702 (100%)

□ 연구원의 학위별 분포 변화

- 연구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학위별 분포 측면에서 보면, '05년 연구원 중 박사학위자의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, 박사학위 이외의 학위 소지자의 비중이 증가함
 - '04년 박사 비중 26.9%, 석사 이하 학위자 비중 73.1%에서 '05년 박사 비중 24.7%, 석사 이하 학위자 비중 75.3%로 변동
- '99년 이후의 학위별 분포 추이를 보면, 박사학위 비중은 감소 추이인 반면, 석사 학위 이하의 학위자 비중은 증가추이임
 - 박사 비율: '99년 31.3% -> '05년 24.7%
 - 석사 이하 학위 비율: '99년 68.7% -> '05년 75.3%

□ 시사점

- '05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인력 수는 급속히 성장하였으며, 그 결과 연구원 집약도는 유럽 선진국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
- 이와 같은 성장은 주로 기업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원 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임
- 반면, 연구원 수의 급속한 양적 확대는 질적인 성장을 수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
 - '99년 이후 연구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, 이는 주로 석사 학위 이하의 학위자를 중심으로 한 양적 확대에 근거
 - 향후 인력 규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

* 자료원 : 과학기술부·kistep,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중간보고 자료

* 자료관련 문의: 기술혁신지표팀 (02-589-2829)